

산 주의 시강사


꽃의 기간

꽃빛 소리 없어도 부르짖어라
 피어났으니 엿보임이다
 드러났으니 일컬음이다
 그리 길지 않는 몇 날의 환희
 그렇더라도 소임의 자리 올려 퍼져라
 의당 꽃으로 누군가 위안일 것이라
 애틁는 그리움에 찾아 바로 서리라

오랜 기다림을 발휘하여 꽃이거니
 온갖 겹치레에 함몰되지 않고서
 숭고한 심밀의 언약적인 반영
 길가에 고스란히 내비치는 것을
 꽃의 기간이 소중하다
 영광의 화수분과 탄식의 그늘린 어운
 꽃의 기간으로 마땅함이라

꽃이란 이름 있어도 이름 없어도
 만감의 근원 한 터울이라
 구슬픈 기척으로 파장이었을 터
 꽃빛 위상의 눈물
 그 누가 거둬들어 감격이랄까?
 허위허위 감사의 기도 여필까?
 세상에 까닭이 없는 것이 있으랴?

꽃이라는 경이로운 그 시선
 나의 영성으로 짙어라
 기회적인 그 아람담고도 숭고함
 나그네 쓸쓸한 어귀에 빛남이라
 나의 우러름 밝힘이여라



서운근
 • 화순도림중앙교회 담임목사
 • 미션리 신운문에 등단(2009년)
 • 시정문학 시 부문 신인상(2021년)
 • 월간 시사문단 시 부문 신인상(2021년)
 • 계간 창작산맥 시 부문 신인상(2021년)
 • 계간 한반도문학 시 부문 신인상(2021년)

미션리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phj2930@nate.com

설교의 맛을 내는 예화13

[협손·교만]

노 수도사의 겸손
 성 브라더 로렌즈 수도사는 싸움이 제일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그 문제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왔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하고 말했다. 처음 부인한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분인 모양이었다. 그는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골장 식당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다. 그는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접시를 닦았다. 그런 그에게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쏟아졌다. 석달이 지나서 감독이 순시차 수도원을 들렀다. 젊은 수도사들은 그 앞에서 꿇꿇했다.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감독이 물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즈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했는데!" 감독의 말에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질색했다. 그들은 그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겸손으로 그 후부터 그곳은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

예화와 관련된 말씀
 마음은 다름을 일으켜도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10:12).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13:13).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엡 5:4).

본지는 위 글을 피넛과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 (피넛 크리스트리더 / 출판기획팀 지음)

예리한 질문 명쾌한 답변 101가지 구약 Q & A

신득일 교수 Q&A 시리즈 2_38 광야의 메추라기

이스라엘이 먹은 메추라기는 매일 저녁마다 주어진 것이었나요? 아니면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 때문에 공급된 것이었나요? '광야의 반란'에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메추라기를 '한 차례의 대접'이었다고 하는데 시편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출애굽기 16:8에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에 나타났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는 만나를 거두어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6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메추라기를 먹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도 이들의 요구로 인하여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메추라기를 받은 사건이 있고 난 후 민수기에서 백성이 불평하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민10:11). 이 기간 동안 메추라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공급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르나는 자신의 주석에서 가끔 메추라기를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고기 구경도 못한 것처럼 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메추라기를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상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메추라기는 한 차례의 대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 105:40의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 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라는 표현을 근거로 지속적인 메추라기 공급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시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본문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막게 하셨다(민11:20)고 위협조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상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들이 메추라기를 퍼서 말린 것은 장기 보관을 위한 것인데 메추라기의 공급이 드물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 (신득일 지음/기독교문서선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gccc.or.kr>



합동총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 총회장 정서영목사입니다. 합동총회 총회신학은 청교도 개혁 신학의 요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계로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박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학부 (졸업후 전도사 시역)	신학 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관리는 본교인 서울 남현동 총신에서 주관함.
학술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 원서접수: 수시접수 (062-266-0153)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0명

광주총신 특별사항

- ▶ 신학부: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 신학연구원: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 (<http://gsgccc.or.kr>)
- ▶ 주야간반: 매주 월/화 (주간: 오전 10시, 야간: 오후 6시) 주말반: 매주 토요일
-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부부학생특혜
- ▶ 최고의 교수진 / 설교전문가 / 실천목회자 양성
- ▶ 교회개혁,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 한교연, 한기총, 한정연, 세기총 가입교단



총회신학
 ↑ 보수신학사상
 동광주
 ● 광안로교차
 ↓ 지동동 (교차로)
 ← 동광주
 ● 대동면명령
 ← 문물지구
 ● 용문로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광주 총회신학. 연구원장: 임강원 목사

수시 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 신학교육기관입니다.